

고창군민 '행복의 질' 높아졌다

행복도 조사 용역 전체 평균 6.79점...4년전보다 5.76%p 상승 7개 영역 지표 개선...임플란트·산후조리 지원 등 '건강복지' 호평

고창군민들의 행복도가 4년전과 비교해 모든 영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군이 발표한 '2024 고창군민 행복도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창군 행복도는 전체 총평균 6.79점(10점 만점, 7개 영역 종합)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한 2020년(6.42점) 대비 0.37점(백분율 기준 5.76%포인트)이 상승했고, 7개(안전환경, 주관적행복, 건강복지, 문화여가, 경제일자리, 주거, 고창군특성지표) 모든 영역에서 행복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점수가 높은 분야는 건강복지(6.85점) 분야로 이는 민선 8기 심덕섭 군수 공약사업인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사제,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사업 등이 군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경제일자리(6.79점) 부문도 행복도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주), ㈜지택, (주)에스비푸드 등 첨단 ESG 기업 유치와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확대(월 50만원→70만원) 및 소상공인 용자리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안전환경분야(6.09점→6.72점)는 2020년 조사 대비 행복도가 크게 늘며 주목받고 있다. 군에선 코로나19 민생안정을 위한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다양한 문화행사,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대형숙박시설 유치, 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주거정책 등 다양한 군민 맞춤형 정책 등을 행복도를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3월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등을 고려해 고창군민 12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담기 위해 군민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룹면접조사(FGI)도 함께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 8기 군민 맞춤형 정책이 고창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써 증명됐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복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어르신 의료+일상생활 통합돌봄 추진

복지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선정 1:1 컨설팅·멘토링 등 실무 지원

정읍시가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체계의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추진 의지가 높은 정읍시를 비롯해 지자체 21곳을 선정해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돌봄교육, 지역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멘토링을 통한 현장 실무 벤치마킹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올해 5월부터 전담교육과정 참여,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기회 제공 등 통합돌봄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부산에서 2024년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설명회를 가졌다.

사는 곳에서 돌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의료, 일상생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정읍형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화석 정읍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정읍형 통합

돌봄은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이라며 "통합지원사업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아동보호구역' 34개소 지정

남원시가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시설, 공원 등 34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원시는 앞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남원경찰서와 '아동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신청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지정협의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어린이집 8개소와 초등학교 11개소, 도시공원 14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등 총 34개소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도시공원 등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구역을 말한다. 해당 지역 시장이 지정한다. 남원시는 지정 구역에 안내표지판과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관제할 계획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등 아동안전 보호 인력을 통해 순찰을 강화, 아동 범죄 예방 및 아동의 안전 확보에 힘써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속 확대 및 운영에 힘써 남원시를 아동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지정 구역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아동 안전·권리 증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역, 호남권 첫 철도 어린이집 개원

역사 후면 광장에 728㎡ 규모...지역 학부모 보육 부담 경감



정읍역 철도 어린이집 '키즈레일' 전경.

국가철도공단은 정읍시 호남선 정읍역에 '키즈레일' 철도 어린이집을 조성하고 개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호남지역에 최초로 문을 연 정읍역 키즈레일은 역사 후면 광장에 총 728㎡ 규모로 조성됐다. 어린이집 지붕은 내장산의 산세를, 벽면은 철도 레일을 형상화한 디자인과 함께 아이들이 상상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설계 특징이다. 정읍시에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5세 이

하 아동 30명 내외로 6개 반을 구성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지역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지역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19년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섯 개의 철도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역사 현장 무장읍성서 되새기는 호국정신

내일 무장읍성 축제...607마리 나비날리기·조선군 복식체험 등 다채



지나히 축제에서 아이들이 조선군 복식과 대북치기 체험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제4회 무장읍성 축제가 14일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일원에서 열린다. 무장읍성(사적 346호)은 호남방어 요충지로 왜적 침입을 막고자 무성현과 장사현을 통합해 1417년(태종 17년) 관과 민이 호국정신으로 혼연 일체가 돼 축조한 읍성으로 행정과 군사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했다. 동학동민혁명군이 무장기포지에서 포교문을 선포하고 봉기한 후 최초로 무혈입성한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다. 제4회 축제 주요 프로그램은 ▲성황제와 식전공연 ▲농악 길놀이 퍼레이드 ▲무장읍성 복원 동영상 상영 ▲배식식(거드름을 피우며 하는 느릿느릿

한 말이나 행동), 나비날리기 ▲조선군 복식체험, 대북치기 체험 ▲어르신 미용 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연예인 초청공연,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무장읍성 대표 퍼포먼스인 나비날리기는 당시 축성에 참여한 고을 백성들의 고단함과 영혼들을 위로하고 무장읍성의 영구보존을 선조들에게 약속하는 의미를 담아서 축성 607주년을 기념해 나비 607마리를 날릴 계획이다. 또 올해 축제에는 사자놀이 재연, 배식식 퍼포먼스 등이 추가되어 새롭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